“환경보전 어렵지 않아요”

전북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전북도는 하절기·장마철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녹조발생과 취약시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전예방 등을 위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민간자율 환경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반복위반업소,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악성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와 훼손된 방지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배출 등 우려가 큼에 따라 사업장내 방치 중인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방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5월까지 점검대상 총 539개 사업장 중 286개 사업장을 점검해 무허가 2건, 부적정 운영 3건, 기준초과 3건 등 총 19건을 적발하여 이중 5건을 고발하였으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아울러, 적발률 감소를 위해서 녹색환경기술센터와 같이 신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산업단지별로 방문해 환경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또, 영세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배출시설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호주 도 환경보전과장은 “폭우로 인한 빗물 다량유입, 폭염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가 어려울 경우 도 환경보전과 및 해당 시군 환경과에 자체개선개획을 제출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하림가공식품단지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송하진 도지사

10일 송하진 도지사는 사옥을 신축 이전(익산 마동)한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박길연 ㈜하림 대표, 이강수 ㈜하림식품 대표를 만나 전북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익산4단지에 공사중인 하림가공식품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수출에 필요한 사항’ 스스로 선택하세요”

전북중기청, 25일까지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올해 2차 참여기업을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수출바우처’사업은 지난해까지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단체전시회 해외바우처 등 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지원되었던 사업을,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에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규모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업별로 최대 0.3억에서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로 지급받은 범위내에서 디자인 개발, 전략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과 온, 오프라인 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1000여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 6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광재 청장은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수출지원사업중 가장 인기가 많고 실제 수출기업에도 유용한 정책’이라며 지역내 많은 기업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수능 응시료, 카드 납부 가능토록 개선해야”

권익위, 납부 · 환불 방식 개선안 마련… 평가원에 개선 권고

앞으로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응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불도 원서접수처의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평가원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원서 접수처를 재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에는 현금 납부만을 인정하는 수능 응시료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다양한 납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응시 과정에서 수험생이 현금을 분실·도난당할 우려가 있는 데다, 환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야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자동이체 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할 것을 평가원에 권고했다.

현재 원서접수처의 재방문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응시료 환불도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와 환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도, 오늘부터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 실시

전북도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 위험물 폭발 등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해 5개 지역 산단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일~1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예찰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산단 내 화학사고 예방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 및 안전분야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을 운영한다.

예찰단은 산단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이번 예찰활동은 5개 산단 내(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저해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여 산단 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슬로시티 전주, 국제슬로시티 왕 중의 왕 ‘오렌지 달팽이상’ 받는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9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서 최고의 대상인 ‘오렌지 달팽이상(Chiocciola Orange 2019)’을 전주시에 수여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해마다 ‘국제슬로시티 어워드’를 통해 전 세계 30개국 252개 슬로시티 회원도시 가운데 7개 도시를 선정해 대상인 ‘오렌지 달팽이상(Chiocciola Orange)’과 △에너지·환경 정책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 △농업, 관광 및 전통예술 보호정책 △지역주민 의식 함양 및 교육 관련 정책 △지역사회 연대 강화 정책의 6개 부문 우수도시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 분야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6개 부문 중 최고점의 평가를 받아 최고상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구도심 문화소외지역에 25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 복원 등 조선왕조 뿌리 깊은 터전을 알리는 공간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는 도시공간 조성 등에 힘써온 성과를 인정받아 슬로시티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정책을 펼쳐온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프랑스 미헝드시에서 열린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도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오순도순 슬로학교 운영 등 속도가 아닌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문화와 전통, 공동체를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 부문의 슬로시티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슬로시티를 상징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달팽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철학인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슬로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120명 선정

전북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방세 모범납세자 120명(전주 55명, 군산 21명, 익산 18명, 정읍 7명, 김제 4명, 완주 7명, 그 외 8개 시군에는 각 1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연 3건 이상, 금액은 개인 5백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5월말까지 1년 동안 도내 NH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수수료 경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도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모범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가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